

저렴한 국산마취제 공급된다

- 마취제 · 회복제 · 구충제 한세트에 7만5천원 -



동물약품 공급업체인 양하무역(대표 임정수)이 시판하고 있는 국산마취제 ‘자이진’이 본회가 추천하는 마취제로 선택돼 2004년 2월부터 양록인들에게 공급된다.

본회는 양하무역이 시판하고 있는 국산마취제를 적극 추천하는 대신, 양하무역측은 본회가 요구하는 마취약 성능 향상 및 기자재 개발 보급, 지회 운영비 보조 등을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본회가 추천하고 양하무역이 보급하는 마취제는 국산마취제인 ‘자이진(50ml)’과 회복제 ‘자이버스(50ml)’, 구충제 ‘아이맥(100ml)’ 한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판매가격은 마취제, 회복제, 구충제를 한세트로 구성하여 75,000원.

마취제 ‘자이진’은 자일라진 성분이 1ml당 100mg 함유된 제품으로 2002년도 본회에서 공급했던 마취약 ‘셀비진’과 동일한 성분이며 효과 역시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복제인 ‘자이버스’ 역시 본회에서 셀비진과 함께 공급했던 회복제와 동일한 성분 및 효능을 지니고 있다.

마취제와 함께 세트로 구성된 구충제 ‘아이맥’은 양록인들이 널리 사용하는 이보맥과 성분이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구충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아이맥’ 대신 ‘이보맥-F’와 동일한 구충 효과를 지니고 있는 ‘아이맥-f(50ml)’도 공급, 마취제 세트 주문

시 양록인들이 본인이 필요한 구충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더불어 양하무역은 본회의 요청에 따라 ‘자이진’의 1회 사용용량이 많은 점을 고려, 이를 3배 농축한 ‘자이진 300(20ml)’도 개발, 공급키로 결정했다. 이는 자일라진 성분의 마취제(자이진, 셀비진 등)가 안전성과 마취 지속성에는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지만 사용량이 많다는 단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자이진 300’은 ‘자이진’의 1/3만 사용하면 마취가 이루어지며 가격은 회복제와 구충제를 포함해 78,000원에 공급된다.

한편 지난 12월 4일 실시된 본회 제 6차 이사회에서는 지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회에서 단체로 마취제를 주문할 경우 세트당 5,000원을 지회 운영비로 지급할 것을 양하무역측에 요청했으며 양하무역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본회 지회가 마취제를 주문할 경우 세트당 5,000원씩을 환급받게 되며 이를 지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양하무역은 마취제 외에도 절각시 사용량이 많은 항생제인 바이실린(일명 피피에스[PPS])도 시중 동물약품가 보다 20~30% 가량 저렴한 가격인 4,800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양록인들이 구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혈용액 및 항응고제 등 각종 절각 관련 제품들도 공급할 계획에 있다. **양하무역**